분쟁지역에서 평화는 어떠한 의미인가?

조성현

들어가는 말

<평화드림5만리>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기해 한반도의 통일을 촉구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여정을 한반도 동족상잔의 시작이었던 (2023년) 6월25일 출발하여 13일간의 유럽 5개국 10개 도시 순례 대장정으로 시작하였다. <사단법인 평화드림포럼(은희곤 대표)>이 주관한 <평화드림5만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동쪽으로 총연장 길이 20,000km를 달리며, 평화노래 버스킹,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평화지지 서명받기, 평화활동 SNS올리기,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위한 구호물품 전달 등의 행사를 펼친 뒤 비엔나의 UN 유럽 오피스를 방문해 유럽인 1000여명의 평화지지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했다. 서명지에는 13개국 의 언어로 “나는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지지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겨있었고, 우리<평화드림5만리>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역사와 함께하고, 각 유럽 나라와 도시들의 아팠던 역사에 함께 하였으며, 우리 한민족과 우크라이나의 분단과 전쟁 중인 아픔과 함께함으로 평화의 일꾼이자 평화의 대사의 일을 감당하였다. 그리고 필자는 이 여정의 연속으로 평화드림포럼 산하에 있는 평화드림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이번 국제 평화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 포럼을 주최한 은희곤 박사는 “우리가 분쟁 지역들에서의 평화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리고 강자의 자리가 아니라 분쟁 지역의 약자의 그 자리에서 외치는 평화의 외침은 무엇인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분쟁 지역에서의 평화’와 ‘약자의 자리’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우리가 분쟁 지역을 선정하고 강사들을 섭외해서 하였다.”라고 말씀으로 평화드림포럼 시작의 문을 열었다. 필자는 이번 평화드림포럼 아카데미를 통하여 마음에 깊이 남는 배움 5가지 정리하여 소감문을 작성하고자 한다.

1. 다른 분쟁 지역의 평화의 과정을 배우라.

한반도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는 일은 지역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국내 정치적 상황과의 국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그 이해 자체와 그 정의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남북 간 서로 합의한 협정들이 한순간에 일방적으로 파괴되는 경우도 있는데, 데이비드 미첼 박사의 강의를 통해 이 세계 분쟁 지역에서의 갈등과 원인은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한 지역에서의 성공 사례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가능치 않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다양한 갈등 사례와 이 평화 프로세스 과정을 연구하고 비교하는 일은 여러 유사점들을 발견할 수 있고,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평화 연구의 현장이라 할 수 있겠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통일을 이야기할 때, 많은 학자들이 독일의 통일 사례를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독일에 3년을 살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고민하였던 필자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국경이 붕괴되고 두 국가의 정치가 합쳐지는 통일 과정으로서 이것이 시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한 물리적 통일을 넘어 남북한이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고 평화를 구축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방점을 두고자 한다면, 아일랜드 사례는 한반도 평화 과정에 많을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북 아일랜드의 평화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

양한 정치적 의견을 수용하는 이 모델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주체들, 다양한 당사자들 간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평화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이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이익을 조율하고 대화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과 좌절을 겪었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이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에서 배울 수 있었다.

2. 한반도 사회적 치유에 방해되는 걸림돌은 무엇인가?

북한에도 여러 번 방문 하였으며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크리스 라이스 박사는 북한과의 건설적인 관계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한반도에서 사회적 치유에 방해되는 걸림돌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들의 문제를 원수로 여긴다든지 다른 나라로 보는 것, 열등한 형제로 바라보며 또는 깨어진 분열된 가족으로 바라보는 식의 방식으로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걸림돌이 된다. 둘째, 북한에 대해서 단 하나의 알고 있는 스토리를 갖고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각각의 이야기가 다 일리가 있지만 하나의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에 된다면 왜곡이 생각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람들이든 미국 사람들이든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소식은 주로 핵 공격의 위협이나 정치적 긴장 관계 그 외에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단 하나의 스토리에 의존하지 말고 다양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반도의 역학관계는 미국과의 연관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을 포함한 강한 나라들이 더 책임적인 모습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 크리스 라이스 박사의 한반도 사회적 치유를 위한 변혁적 실천 4가지를 제안

첫째, 이제 통일 담론(재 통일)에서 화해의 담론으로 그리고 교회도 신학적 화해의 시각으로 변화돼야 된다.

둘째, 화해의 차원들 중에서 개인적 화해, 사회적 화해, 정치적 화해 세 차원이 있는데 그 중에 사회적 화해가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협적인 타자를 포용하려는 집단적 사회적 의지와 타자에 대한 정체성들을 우리가 기꺼이 재조정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평화의 미래를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인식이 병행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실천은 회복적 정의의 실천으로 정의는 중요한데 정의에도 회복적 정의 그다음에 징벌적 처벌적 정의 또는 분배적 정의 또는 구조적 정의 이러한 개념들이 있다. 크리스 라이스 박사는 징벌적 처벌적 정의보다는 회복적 정의를 제안한다.

넷째, 적극적인 평화 또는 긍정적 평화의 개념을 실천하는 것으로 간단한 예로 북미 간의 외교적 관계도 수립해야 한다고 또 제안을 한다.

크리스 라이스 박사가 제안한 네 가지 중에 특별히 회복적 정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이 생겼다. 회복적 정의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 책임을 진다'라는 상식화된 응보적 정의와 다른 이해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정의 패러다임이다. 회복적 정의는 잘못을 가해한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벌이나 비난만으로 잘못을 한 사람이 정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지 않는다. 회복적 정의 관점은, 발생한 피해가 최대한 회복되는 것을 정의의 목표로 삼고, 그 과정에 가

해자의 책임 있는 참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직시하도록 돕고, 피해를 회복하는 일에 자발적 책임을 질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잘못이나 범죄로 망가진 관계를 최대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공동체가 함께 정의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피해자의 회복을 중심에 두고 공동체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 대화 모임이 주요 실천 과정이 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회복적 정의 접근에 대한 이해의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과거 발생한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과 화해는 순차적 과정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제 강점기와 연이어 발생한 한국전쟁과 남북 분단으로 한 번도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이어져 온 한국 근현대사의 분열적 정치 구조와, 이 과정에서 제대로 처벌 되지 않은 가해자 그룹이 여전히 사회 기득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 사회 구조 속에서, '상식적인' 과거사 청산은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교류와 협력을 통한 사회통합에 있어서 많은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체가 함께 정의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적극적 역할을 하는 회복적 정의 연구가 필요하다. 피스 메이커가 된다는 것은 다리가 된다는 것이며, 다리는 양쪽에서 모두 밟게 되는 것이다. 회복적 정의의 평화 조성 사역에서 이러한 소명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엄지와 집게 손가락처럼 서로 마주보는 부분이며 함께 해야만 사명에 충실할 수 있다.

4. 시민과 민중의 삶이 만나게 하는 경계인(Grenzgänger)의 삶을 살자!

그동안 우리 남한의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마다 남북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재 남과 북은 그런 열매를 거두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해왔던 종전선언 혹은 종전협정도 오히려 불발되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우리 남한에서 남북의 평화와 통일 문제는 정권의 이데올로기 혹은 정치의 방향과 함께 통일을 악용하는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화와 통일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 남한과 당국자들과 국민들 역시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분단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최경희 박사는 함경북도 청진 경제 전문대학 공업경영학과 졸업한 북한 이탈주민으로 이 땅에 정착하여 북한의 실상을 알리며 현재 남한과 북한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돕고 있다.

지금의 남과 북의 대치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것 등 방송을 통하여 잘 아는 상황인데, 북한식으로 말하면 민중의 삶이나 우리 남한의 서민들의 삶은 정보의 제한으로 서로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남과 북의 관계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진 것도 사실이다. 독일어로 경계인을 (Grenzgänger)라 하는데, 이것은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을 때 양쪽을 오고 가면서 평화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래서 양쪽으로 서로의 입장을 잘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권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의 교류 또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5. 정의를 토대로 하는 평화

평화를 정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평화의 기준은 시대와 지역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평화를 정의할 때 각 분쟁과 갈등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팔레스타인에서 평화 운동을 전개하는 알 주비 대표가 제시하는 평화는 곧 정의와 같은 말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한정된 지면과 시간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오랜 갈등의 역사를 세세하게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중요할 수 있다. 유대인들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땅에 오랫동안 주체가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들은 영원히 약자였고, 오랫동안 약자였으며 또 유대인들은 유럽의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학살당하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다.

1948년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이 땅에 돌아와 독립 국가를 이루었고, 팔레스타인은 무력 충돌을 불사하며 자신들의 자치권을 지키는 동시에 독립 국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주도하는 주도권을 갖는 통합된 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평화의 길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은 두 구별된 국가를 세워 공존하는 것이 평화의 길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알 주비 대표는 단순한 숫자의 논리를 넘어선 근본적인 평화의 길이 바로 정의의 실현에 있음을 믿고 있다. 한 나라가 되었든 두 나라가 되었든 이것은 미래의 목표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살 수도 없고 전쟁과 무력 충돌로 인해 발생한 부상자 가족을 돌보는 상황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인 것이다.

이번에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다.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부상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무력 충돌은 더 가족들의 삶을 비참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한 무자비한 학살과 납치 등은 어떤 이유로도 존중받을 수 없는 것인데 정의가 부재된 평화는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지금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보편적인 정의를 토대로 하는 정상화되어야 한다. 이 두 나라에게 있어 평화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목표이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될 인간됨으로서의 정의를 이루어 나갈 때 비로소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안에 평화를 향한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마무리하며...

필자는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평화드림5만리>의 여정을 통하여 깊은 배움을 경험하였다. 23.07.04 흔히 아우슈비츠로 불리우는 오씨비엥침에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넘어갈 때, 은희곤 박사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다. 강의에 의하면, 1991년 남한과 북한은 유엔 46차에 동시가입 국가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한 국가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구테타에 의한 것이라 이야기 될 수 있고 그러한 이유로 북한 탈북민이 남한에 들어오면 유입이 되는 것이다. 국제법의 기준과 대한민국 헌법의 기준이 다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회복 차원에서 극우주의 자들이 생기는 것이 한 몫 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의를 토대로 하는 평화 관점에서, 또한 유엔이나 국제적인 관점에서 북한은 외교와 주권을 가진 한 나라 한 국가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가대 국가로 함께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는 적대적 분단, 위기적 분단,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기 때문에 적대적이지 않고 평화적인 분단, 안정적 관리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적 교류와 심리적인 교류 언어적인 교류를 주도하는 **경계인(Grenzgänger)이** 중요한 때이다.